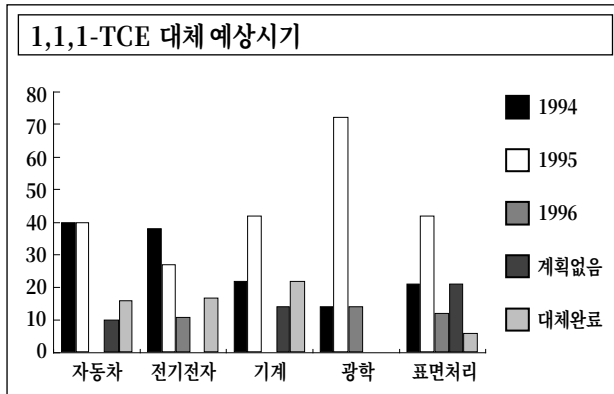


CFC세정제 활성화 불투명

1,1,1-TCE 등 대체용으로 기대 ... 관련업계 인식전환이 관건

CFC 세정제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1,1-TCE, 에틸렌 등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CFC세정제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뚜렷한 신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96년부터 1,1,1-TCE가 사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서 아직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며 1,1,1-TCE대체품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TCE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TCE는 악취 등 작업환경이 나빠 장기적으로는 하이드로카본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고정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하이드로카본계 사용이 장기적으로 용이하다

고 밝히고 있다.

하이드로카본계는 고정설치비가 많이드는 반면 공급이 원활하고 환경에도 비교적 양호해 대체품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하이드로계 세정제는 이수화학이 생산·공급하는 가운데 엑손이 수입판매하고 있다.

이수화학은 기존의 공장을 이용 40억원을 투입, 3만톤 규모의 CFC세정제 공장을 94년말 완공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내수의 저조로 가동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화학은 95년을 계기로 대우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창출이 예상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수화학은 원료인 탄화수소를 자체조달하고 있어 수입품에 비해 싸게 공급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엑손은 90년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기업들은 관련업계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 급격한 신규수요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FC 세정제는 회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리사이클 설치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중소기업에서는 즉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FC 세정제는 표면장력이 낮고 침투율이 좋아 정밀기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용을 위한 시험기간이 4~5개월정도 소요되고, 주문생산체제로 설비가 완공되면 연속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